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 주양육자들의 정책적 요구 분석*

이미화¹⁾

이윤진²⁾

이정립³⁾

요약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지원사업 대상 가정의 주 양육자들이 정부에 대하여 원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하는 육아지원정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408가구의 저소득층 가정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지원사업의 대상인 저소득층 가정의 주양육자들은 미래의 자녀 교육비 지원이나 기초생활비 지원확대 등과 같은 비용지원 정책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으로는 자녀의 학습지 또는 학원비 지원과 같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확대 및 프로그램 확대도 많이 요구하였다.

주제어: 저소득층 아동, 아동지원정책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제발전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아

* 이 글은 2008년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수행한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지원 방안」의 보고서의 일부임.

-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 3)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동의 발생추이는 증가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이혼율 증가와 더불어 조부모와 손자·손녀가 함께 사는 조손가정도 꾸준히 상승하여 1995년 3만 5194가구에서 2005년에 5만8101가구로 10년 동안 65.1%증가(중앙일보, 2009년 1월 15일)함과 동시에, 아동빈곤율도 같은 기간 동안 1996년 3.6%, 2000년 7.7%, 2004년에 8.8%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이봉주, 2006)현상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이처럼 빈곤은 가족해체를 야기하고 아동의 빈곤으로 연결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부적절한 양육환경과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천이라 하겠다.

우리사회에서 빈곤아동에 대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개념의 아동지원사업이 태동하게 된 시기도 1990년대 후반으로 그 맥을 같이 한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아동지원사업의 역사는 10년도 채 안 되는데, 1999년 삼성복지재단에서 소위 ‘달동네 저소득 빈곤탈출’이란 근본취지를 갖고 시작한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사업이 저소득 아동지원사업의 첫 출발이라 하겠다. 이처럼 민간기업 수준에서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아동지원사업을 전개해 오다가 정부가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2003년부터이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란 프로젝트 하에, ‘도시 저소득 지역의 영유아 및 학생(청소년)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문화·복지의 총체적 제고’를 목적으로(교육인적자원부, 2003)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 사업을 출범하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이 시작된 이듬해인 2004년도에는 중앙일보에 “가난 속에 갇힌 아이들”라는 기사가 연재되면서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We Start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 현재 전국 23곳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수준에서는 당시, 보건복지부가 2008년부터 희망스타트 사업이란 사업을 출범하였다. 이상의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두 사업은 행정동을 단위로 저소득층 아동(0세~12세)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위한 보건·교육·복지 통합프로젝트”라는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적 성격이 비슷하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빈곤아동에 주목해서 통합적 지원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관을 불문하고 빈곤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경로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복지에 대한 우리사회

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 하겠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소득층의 아동복지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보미⁴⁾, 방과후보육 등이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한 저소득층 영유아통합지원사업으로 ‘시소와 그네(Success By 7)’⁵⁾가 있다. 게다가 새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능동적 복지’를 표방하였고 이에 발맞춰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 보육서비스 제공’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여 보육서비스 이외에 건강·영양, 가족지원, 인지능력 향상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추진’(http://www.mw.go.kr)을 새정부 보육정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과거 10여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최근 들어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관심은 커졌고, 다양한 아동지원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각 아동지원사업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아동지원사업들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아동지원사업들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각 사업의 장점과 보완점을 발견하고, 이로서 저소득 가정 영유아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국가 정책과도 부합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부주관의 드림스타트 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위스타트 사업, 그리고 민간기업 주도의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서비스 사업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주양육자들의 정책적 의견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지원사업 대상 가정의 주 양육자들이 정부에 대하여 원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하는 육아지원 정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4)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지원으로 이용대상자는 0세(3개월)-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이며 주요 지원내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시간당 보육료의 80%(시간당 5,000원의 보육비 중 4,000원 지원), 평균소득 200%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시간당 보육료 20%(시간당 5,000원의 보육비 중 1,000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이용시간에 따라 비용지원 달라짐)임. 공급기관은 전국 65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임.

5) ‘시소와 그네’는 0~7세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의 빈곤층 어린이들에게 높은 희망을 위한 공평한 인생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신체·심리·정서적으로 균형을 이룬 어린이로 함께 키워내자는 의미임(www.chest.or.kr: 검색일 2008년 2월 2일).

II. 선행 연구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은 상당 수준 진행되어 왔다. 여기서는 저소득 가구 및 아동의 특성을 파악한 선행연구들과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저소득층 가구 및 아동 특성

저소득층 가정의 특성으로는 첫째, 가구주들은 높은 무직률과 단순노동, 행상, 노점, 영세자영업과 같은 낮은 직업군에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매우 높아서 생활 자체가 불안정하다(이소희 외, 2000; 장명립, 2006 재인용)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둘째, 저소득층은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부부간 갈등문제가 많고 이로 인한 결혼 만족도가 낮아서 결혼 생활이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불안정한 가족관계는 가족폭력으로 표출되면서 이혼, 별거, 가출로 이어지면서 가족해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노인철 외, 1995; 장명립 2006 재인용), 실제로 일반가정에 비해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많다(이봉주, 2006). 셋째, 저소득층 가정의 집은 대개 비좁고 비위생적이며 주변환경은 복잡스럽고 비교육적일 뿐 아니라 위해하기까지 하는(유희정, 1997; 나정 외, 2004) 등 저소득 가구는 열악한 주거구조 및 지역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부모의 특성은 중류층에 비해서 자녀에게 덜 온정적이며, 더 무관심하거나 거부적이라고 보고된 연구가 있는가 하면(김경희·황혜정, 1998), 저소득층이 중류층에 비해 더 허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연구도 있다(어주경·정문자, 1999). 또한 저소득층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중류층에 비해 합리적 지도, 애정, 적극적인 참여요인 모두 더 낮은 특성을 보이며(김혜영, 1994), 주경민(2000)은 중류층과 저소득층 모두 아동간의 상호작용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지만 추구하는 방식에서 중류층 부모는 논리적인 표현과 격려를 주로 하여 성취감, 자율성, 창의성을 강조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야단을 많이 치고 명령에 복종하게 한다고 하였다(장명립, 2006 재인용). 그밖에 자녀교육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부모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는데, 자녀양육에 대한 방법을 잘 몰라서 또한 자녀의 행동이나 정서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거나(김명순, 2001), 다른 계층의 부모들처럼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있지만 생계활동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직접 교육을 하기에는 지식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변화순, 2001).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저소득층 아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과 발달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면서 영양실조아가 되는 경향이 많고 여러 질병에 걸리기가 쉬우며(나정 외, 2004) 둘째, 모든 저소득층 아동(유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가정에 비해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은 높은 수준의 품행장애와 행동문제, 우울증, 낮은 자존감, 사회적응력 결핍, 소극적인 태도, 긴장,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을 보이며 폭력성, 공격성 측면에서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중상류층 아동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진술한 부모의 특성들과 결부되어 아동의 지적, 정서적 발달 및 성격형성과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원식, 1991; 민경화, 2000; 허인영, 1999). 셋째, 저소득층 아동의 지적 및 학습능력 측면에서도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김선자, 1999; 민경화, 2000), 이는 저소득층 가정은 바람직한 가정환경의 척도인 장난감이나, 게임, 읽을거리를 통한 자극, 언어자극, 셈하기·어휘 등의 학구적 행동의 자극 모델링과 음악·예술자료·외출 등을 통한 자극의 다양성 등의 부족 등 불리한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언어능력에서도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언어 속도가 느리고, 더 오랫동안 미숙한 발음을 하며, 문장 길이도 더 짧은 경향을 보이며, 일상 언어에서도 아무에게나 반말을 하고 욕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김향숙, 2001). 또한 읽기·쓰기와 관련된 문해 발달 측면에서도 저소득 가정의 유아가 더딘 발달을 보이거나 다른 발달 양상을 나타내는 연구들이 있으며(Heath, 1983; Edward, 1989; 장명림, 2006 에서 재인용), 저소득층 유아일수록 모방적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중산층 가정의 유아는 어휘 산출을 더 많이 하는 특징을 보인다(김명순, 2001).

2. 국내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관한 연구들은 사업의 역사가 짧은 만큼 그다지 많지 않다. 교복투 사업과 관련해서는 장명림(2006)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영유아에 초점을 맞춰서 교복투 내에서 영유아사업의 운영실태를 고찰하고 통합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여타 지원사업의 연구와는 달리 영유아에 초점을 두고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위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스타트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빈곤아동의 심리정서발달 요인을 분석한 김선숙(2008)의 학위논문을 꼽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스타트 대상 아동들은 사업에 참여하는 횟수에 반비례해서 외현화 행동 및 심리 정서발달의 변화율의 감소, 빈곤부모의 부정적인 영향은 완충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은 강화된 것으로 규명하였다.

이외에도 각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수준에서 사업을 평가·분석한 결과보고서들이 있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서비스에 대해 종단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보고서가 총 3차례(2006, 2007, 2008) 나왔다. 대체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동의 발달, 부모와 가족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지원받는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해 부모들은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교복투 사업의 진행성과를 보고한 김정원(2006, 2007) 연구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2007년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를,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집중지원 대상 학생들은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함으로써 교복투 사업에 대한 강한 요구를 보였으며, 사업연차가 높을수록 학생과 학부모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보다는 학부모가 더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실시한 경기도의 위스타트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이봉주, 2007). 그 내용을 보면 아동의 건강과 영양상태, 인지적 능력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초등학교 4~5학년의 학업성취도는 단기에 비해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향상이 일어났으며, 부모의 음주와 흡연도 감소하고 부모-자녀 관계도 개선되는 등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과성도 보고되었는데, 서비스 대상 아동 및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지역사회 환경이 유사 또는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90%이상, 주양육자의 양육관련 실제 아동양육 및 기대정도가 각각 61.5%, 70.8%로 크게 높아졌으며, 학업 성적은 전년 대비 37.5%가 향상되었고, 학교 생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저소득층 가구와 아동의 부정적인 특성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일관성있게 밝혀진 것처럼, 빈곤 또는 저소득은 아동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들이 시작되었고,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기에 개입해서 불리한 환경으로 인해 제공받지 못하는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아동, 부모에게 제공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각 사업의 성과보고서들이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실행 중인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별로 연혁 및 개요, 추진체계, 현황, 프로그램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각 사업을 면밀하게 고찰하면서 사업들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 분석한 4개 사업의 추진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가난의 대물림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동일 목적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둘째, 이들 사업의 키워드는 “연계”이다. 연계라는 용어에는 이미 협력(조)을 내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바, 저소득층 가구와 아동은 단편적인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때 ‘연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과 수행해야 하는 인력(전문가)연계가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 이는 기관과 인력(전문가)의 지속적이면서 원활한 공급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둘째, 4개 사업의 지원 대상 아동 중 영유아는 공통적인 지원대상이다. 교복투는 영유아 및 초중등학생, 드림스타트는 임산부 및 0~12세, 위스타트는 0세~12세, 삼성포괄 보육서비스는 삼성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라는 점에서 영유아는 이들 사업의 공통 대상이다. 교복투 사업은 지원 대상 아동 연령대가 가장 크지만, 실제로 영아는 아직까지 사업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자문회의).

셋째, 프로그램의 유사성이다. 특히, 영유아 프로그램은 각 사업별로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 건강, 교육·보육, 복지 크게 3 영역으로 구분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각각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넷째, 4개 사업 모두 개별(사례)관리를 강조, 강화하면서 어떤 획일화된 통합 서비스가 아닌 각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4개 사업이 같은 목적을 추구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위한 과정은 조금씩 다르면서, 차이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사업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드림과 위스타트 사업의 대상범위는 행정동 단위의 ‘지역(마을)’이란 점에서 동일하지만, 교복투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단위라는 점에서 앞의 두 개 사업과 차별된다. 교복투 사업은 학교가 중심이기 때문에 몇 개의 행정동을 걸쳐 있다. 한편, 행정동 단위를 지원하는 사업들의 경우 저소득 가구라 하더라도 지원사업 대상 지역(행정동)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⁶⁾

둘째, 거점기관이 다르다. 드림은 드림스타트센터, 위스타트는 위스타트센터를 포함한 마을전체이며, 교복투는 학교(초·중·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삼성포괄 보육서비스는 삼성어린이집이다.

셋째, 각 사업의 주관하는 주체가 다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중에 영유아를 지원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실제로는 관할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치원 혹은 보육시설이 연계기관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주관 하에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지원의 역사가 길지 않은 시점에서 선부른 문제제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각 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분석을 토대로 제언을 한다면 각 사업들 간의 윈윈(win-win)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삼성포괄 보육서비스는 논외로 하더라도,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나머지 3개 사업은 자신의 사업을 특화해 나가면서 동시에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겠다. 각 사업별로 지원대상 영유아를 연령에 따라 구분한다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특화할 것을 조심스럽게나마 제안한다. 예컨대 교복투 사업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영아를 사업대상으로 굳이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학령기 아동(초등학생)의 학업(교육)까지 ‘무리하게’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6)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음.

각 부처의 고유 업무 영역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각 사업들 간의 유기적 연계를 하는 윈윈(win-win) 전략을 함께 추구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수요자들에게 체감도 높은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3. 국외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들에 가장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여기지는 대표적인 국외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으로 미국의 헤드스타트와 영국의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 초 미국사회는 빈곤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빈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아기 양육단계에서 부터의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미국정부는 1964년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을 제정하고, 경제기회국에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65년 존슨 대통령은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이는 유아기 개입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접근이며 미국 연방 정부 차원의 최초의 프로그램이기도 하였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아동은 물론 부모도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김용미, 2007, 신화식의, 2004).

Abecedarian Project 과 Perry Preschool Program 과 같은 조기 중재 프로그램의 경제적 효과와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영아와 가정에 중요한 장기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힌 연구들에 기초하여 만 3세 이전의 예방적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4년에 조기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1995년 이후에는 3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기관 중심, 또는 가정 방문과 기관 중심 중에서 선택하는 형태의 조기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임신부들의 건강한 출산과 영아의 발달을 조장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Roopnarine & Johnson, 2005).

영국은 전통적으로 아동양육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강하며 일부 학자들은 집단생활의 경험이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경우 보다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최소한으로 유지되던 영국의 교육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88년 교육개혁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 대대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교육개혁법은 학교에 대한 정부의 전통적인 불간섭주의를 지양하고 국민교육과정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유치원 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소외된 영역이었으나 1988년 이후 질적인 고양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997년 블레어 총리 하에 모든 4세 이하 영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들을 위한 슈어스타트를 시작하였다.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슈어스타트 사업이 시행되어서, 잉글랜드 (England), 스코틀랜드(Scotland),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와 웨일즈(Wales)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각각 고유의 평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4년 “부모에게는 선택을, 아동에게는 가장 좋은 출발을(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이라는 10년 아동보육전략 (Ten Year Childcare Action Plan)을 다시 마련하였는데, 1998년의 국가 아동 보육 전략과 달리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있다(백선희, 2006).

슈어스타트는 사회적으로 소외를 방지하고, 교육기준을 향상시키며, 건강상의 문제를 줄이며 삶의 기회를 향상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다른 어린이들과 동등하게 학업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슈어스타트는 영국의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이 삶의 출발점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킬 수 있도록 가정과의 협조아래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육서비스에서 부모일자리 알선까지 부모들에게 구직정보와 보육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임신전후 건강진단까지 지원함으로써 가정과 지역공동체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생후2개월 유아가 있는 집을 방문해 건강진단, 보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늘리고, 가족공제 대신 근로가구조세공제 도입 등 범 정부차원에서 금전적인 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은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www.westart.join.com).

헤드스타트 프로그램과 슈어스타트 사업 간의 공통점은 첫째, 저소득층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둘째, 두 가지 사업은 모두 영유아를 위한 조기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및 사례관리와 같은 서비스들 간의 협력 및 통합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셋째,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중시하였다는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을 질을 중시하였다는 것이다. 다섯째, 두 가지 사업은 모두 법적인 기반에 근거하였다는 것이다. 헤드스타트 사업은 헤드스타트 법에 의해 슈어스타트의 경우는 보육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헤드스타트 사업은 센터를 중심으로, 슈어스타트 사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각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아동지원사업이 센터 중심 사업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의 성격을 잘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삼성 포괄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미국의 헤드스타트 사업과 비슷한 센터중심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이라 볼 수 있고,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와 같은 사업은 영국의 슈어스타트 사업과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각 사업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로부터 필요한 부분들을 각자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아동지원 사업의 앞으로의 사업 전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4. 용어정의

본 연구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용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이란 연구대상으로 한정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서비스의 4개 사업을 하나로 포괄해서 명명하기 위한 편의상의 용어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법정저소득층 1층과 차상위 2층까지이다. 또한 ‘저소득’, ‘빈곤’, ‘가난’ 등의 유사한 용어들을 지금까지는 혼재해서 사용했지만 본문에서는 ‘저소득층’ 용어로 통일하겠다.

셋째, 본 연구의 아동 및 영유아는 모두 현행 법령에 규정된 정의를 따른다.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아동복지법 제2조), 영유아는 “6세미만의 취학전 아

동”(영유아보육법 제2조),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유아교육법 제2조)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이며 영유아는 “18세 미만 아동 중 취학전 아동 또는 어린이”를 뜻한다.

Ⅲ.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국·내외 기존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각 사업별 특징들을 고찰한다. 주로 검토할 문헌자료로는 각 사업에서 실시한 자체평가보고서, 사업안내서, 정책계획서 등이며 저소득층 아동 관련된 선행연구들도 아울러 검토한다.

2. 설문조사

설문지는 저소득층 가정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지역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4개 사업이 공통적으로 실시되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지역에 국한해서 실시하였다. 다만, 교복투 사업은 서울지역에 국한하였는데 교복투 사업은 본 연구대상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한데⁷⁾ 서울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면서 영유아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가.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 표집

본래 4개 각 사업별로 80가구와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일반 저소득 가구

7) 교복투 사업은 유·초·중·고 학교체제를 전제로 추진되는 데, 유치원은 아직까지 학교 체제에 확립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80가구 등 총 400가구를 목표로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08가구가 표집 되었다.

<표 1> 각 사업별 설문 대상 가구수

| | 드림 | 위스타트 | 교복투 | 삼성 | 일반 | 총 |
|-----|----|------|-----|----|----|-----|
| 표집수 | 80 | 80 | 74 | 90 | 84 | 408 |

3.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특성과 가구 및 부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아동 특성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 대상 가정에서 영유아가 여럿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두 번째 자녀, 세 번째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에도 대답을 하도록 하였지만 그 대상이 가장 어린 자녀가 영유아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해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어린 자녀가 영유아에 해당하는 경우인 4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가장 어린 영유아 자녀의 연령, 성별, 건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 아동의 연령 및 성별, 건강

먼저, 아동의 연령 구분에서 0세에서 만 3세까지를 영아라고 간주하고, 만 4세에서 만 7세까지를 유아로 구분하였을 때, 영아가 46.3%이었고, 유아는 52.9%이었다. 성별로는 남아가 51.7%이었고, 여아가 47.5%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영유아들의 분포에 있어서 유아가 영아보다 조금 더 많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되어있고, 성별 분포에서는 남아의 비율이 여아보다 조금 더 높지만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건강한 아동이 82.8%, 보통인 아동이 10.8%, 허약한 아동이 5.6%로 아동들의 건강상태는 대부분 건강하거나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아동의 연령 및 성별, 건강

단위: %(명)

| 구분 | 연령구분 | | | 성별 | | | 건강상태 | | | | 계 |
|-----|-------|-------|-----|-------|-------|-----|-------|------|------|-----|-------|
| | 영아 | 유아 | 무응답 | 남 | 여 | 무응답 | 건강 | 보통 | 허약 | 무응답 | |
| 비율 | 46.3 | 52.9 | 0.7 | 51.7 | 47.5 | 0.7 | 82.8 | 10.8 | 5.6 | 0.7 | 100.0 |
| (수) | (189) | (216) | (3) | (211) | (194) | (3) | (338) | (44) | (23) | (3) | (408) |

나. 가구 및 부모 특성

가구 및 부모 특성에 관한 정보를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부모들로부터 얻었다. 부모들에게 가족 구성원, 주택소유형태, 주양육자의 성별, 연령 및 학력, 고용형태, 건강, 배우자에 관한 정보, 가계소득과 국민기초생활급여 수혜유무와 같은 질문들에 대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에 그 응답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1) 가족 구성

먼저 자녀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자녀수는 전체자녀수가 2명인 경우가 51.0%로 가장 많았고, 3명이 21.1%, 1명인 경우가 20.6%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가족 구성은 부모와 자녀 2명으로 이루어진 4인 구성의 핵가족 형태가 대체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전체 자녀 수

단위: %(명)

| 구분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8명 | 무응답 | 계 |
|-------|----------|-----------|----------|---------|--------|--------|--------|------------|
| 비율(수) | 20.6(84) | 51.0(208) | 21.1(86) | 2.9(12) | 1.7(7) | 0.5(2) | 2.2(9) | 100.0(408) |

2) 주택소유형태

다음으로 주택소유형태에 관하여 살펴보면, 주택소유형태는 전세가 3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 27.9%, 자가 15.2% 순이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보다는 전세로 살거나 보증금 있는 월세 형태로 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표 4> 참조).

<표 4> 주택소유형태

단위: %(명)

| 구분 | 자가 | 전세 | 보증금 있는 월세 |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무상 | 기타 | 무응답 | 계 |
|-------|----------|-----------|-----------|----------------|---------|----------|--------|------------|
| 비율(수) | 15.2(62) | 30.9(126) | 27.9(114) | 4.4(18) | 9.1(37) | 11.3(46) | 1.2(5) | 100.0(408) |

3) 가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가계월평균소득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 25.7%,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7.9%, 50만원 미만 7.6%,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이 6.9%, 300만원 이상이 2.7%,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1.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수혜 여부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받는 경우는 27.5%이었고, 받지 않은 경우는 72.3%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가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혜 유무

단위: %(명)

| | 구분 | 비율 |
|-----------------|-------------------|-------------|
| 가계 월평균소득 | 50만원 미만 | 7.6 (31) |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25.7 (105) |
| |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36.0 (147) |
| |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17.9 (73) |
| |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 6.9 (28) |
| |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1.7 (7) |
| | 300만원 이상 | 2.7 (11) |
| | 무응답 | 1.5 (6) |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유무 | 예 | 27.5 (112) |
| | 아니오 | 72.3 (295) |
| | 무응답 | 0.2 (1) |
| 전체 | | 100.0 (408) |

4) 주양육자의 특성

주양육자로는 부모가 8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부모가 10.5% 순이

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영유아들은 주로 부모들에 의해 양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10명 중 1명 정도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조부모가 양육하고 있었다.

응답자인 주양육자 성별, 연령, 학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90.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주양육자가 주로 어머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30~39세)가 6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40~49세)가 20.1%, 20대(20~29세)가 9.3%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으로는 고졸이 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졸미만이 18.9%, 2~3년제 대졸 13.0%, 4년제 대졸이 10.0% 순이었다.

아동을 주로 양육하는 사람은 부모였고, 30대의 고졸학력이 가장 많았다 (<표 6> 참조).

<표 6> 주양육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 비율 | |
|------|-------------|------------|
| 주양육자 | 부모 | 87.7 (359) |
| | 조부모 | 10.5 (42) |
| | 형제자매 | 0.2 (1) |
| | 친인척 | 0.7 (3) |
| | 무응답 | 0.7 (3) |
| 성별 | 남성 | 8.8 (36) |
| | 여성 | 90.9 (371) |
| | 무응답 | 0.2 (1) |
| 연령 | 20-29세 | 9.3 (38) |
| | 30-39세 | 61.3 (250) |
| | 40-49세 | 20.1 (82) |
| | 50-59세 | 4.9 (20) |
| | 60-69세 | 2.7 (11) |
| | 70-79세 | 1.0 (4) |
| | 무응답 | 0.7 (3) |
| 학력 | 고졸 미만 | 18.9 (77) |
| | 고졸 | 57.1 (233) |
| | 2-3년제 대졸 | 13.0 (53) |
| | 4년제 대졸 | 10.0 (41) |
| | 대학원 재학 이상 | 0.7 (3) |
| | 무응답 | 0.2 (1) |
| 전체 | 100.0 (408) | |

5) 주양육자의 고용형태

응답자의 고용형태에 관하여 살펴보면 고용형태에서는 전업주부가 52.9%로 가장 많았고, 정규직(회사원, 사무직) 11.5%, 임시근로자(1년 미만 고용계약) 10.3%,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계약) 7.4%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주양육자인 어머니들은 취업을 한 경우보다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표 7> 참조).

<표 7> 주양육자의 고용형태

단위: %(명)

| 구분 | 고용주 (회사 운영 등) | 자영업자 (가게, 포장마차 등) | 정규직 (회사원, 사무직) | 임시 근로자 (1년 미만 고용계약) | 일용 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계약) | 전업 주부 | 무직 | 기타 | 무응답 | 계 |
|-----|---------------------|----------------------------|----------------------|------------------------------|----------------------------------|----------|------|-----|-----|-------|
| 비율 | 0.2 | 7.6 | 11.5 | 10.3 | 7.4 | 52.9 | 8.3 | 1.0 | 0.7 | 100.0 |
| (수) | (1) | (31) | (47) | (42) | (30) | (216) | (34) | (4) | (3) | (408) |

IV. 연구 결과

1.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 주양육자들의 정책적 요구

먼저 각 아동지원사업 대상 가정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아동지원사업 대상자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대상자이라고 대답한 부모들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아동지원사업 유형별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정과 육아에 가장 필요한 정책에 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자신들의 가정과 육아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 지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물었다. 부모응답의 분석 결과들이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가. 저소득 영유아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아동지원사업 대상자라고 응답한 주양육자들이 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 각 사업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는 정책이 다소 달랐다. 첫째,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 미래자녀교육을 대비하여 국가와 가정이 함께 적금을 붓는 정책으로서의 자녀교육비 지원이 5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기초생활비 지원확대 23.9%, 의료비 지원 서비스 9.0%, 부모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4.5%,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여가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동일비율로 1.5% 순이었다. 위스타트 사업 대상 영유아의 주양육자들은 현재 생활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미래의 자녀교육비 준비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들고 있었다.

둘째,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기초생활비 지원확대를 37.9%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들었고, 다음으로 미래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마련이 28.8%, 의료비 지원서비스 13.6%,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여가 활동 지원 프로그램 지원 9.1%,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7.6%,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지원이 동일한 비율로 1.5% 순이었다. 위스타트 사업 대상 영유아의 주양육자들은 국민기초생활급여와 같은 기초생활비 지원 확대를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미래자녀 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정책을 들었다.

셋째,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사업의 경우, 미래자녀교육을 대비하여 국가와 가정이 함께 적금을 붓는 정책과 같은 자녀교육비 지원이 4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여가 활동 지원 프로그램 16.9%, 기초생활비 지원확대 11.9%, 부모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10.2%, 의료비 지원 서비스 6.8%,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3.4% 순이었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사업 대상 영유아의 주양육자들은 위스타트 사업 대상 영유아의 부모들처럼 현재 생활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미래의 자녀교육비 준비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들고 있었다. 그리고 기초생활비 지원확대보다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더 필요한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보아 가족 간의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경우, 미래자녀교육을 대비하여 국가와 가정이 함께 적금을 붓는 정책과 같은 자녀교육비 지원이 57.9%로 가장 큰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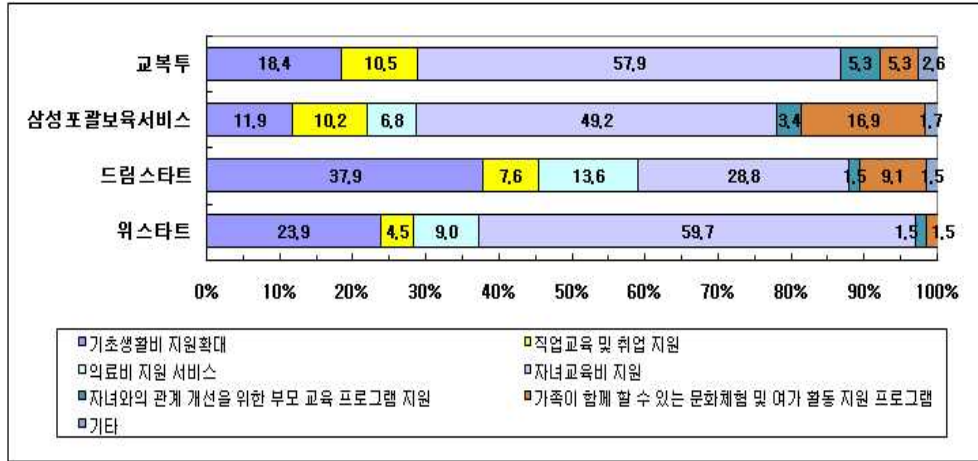
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기초생활비 지원확대 18.4%, 부모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10.5%,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여가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동일비율로 5.3% 순이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대상 영유아의 주양육자들은 현재 생활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미래의 자녀교육비 준비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들고 있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제외한 다른 세 가지 아동지원사업 영유아 대상의 주양육자들은 미래의 자녀교육비 준비를 자신들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간주하였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속한 주양육자들은 기초생활비 지원확대가 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위스타트 사업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에 속한 주양육자들은 기초생활비 지원확대와 같은 정책이 두 번째로 자신들의 가정에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즉, 자신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미래자녀교육비 준비를 위한 정책지원과 기초생활비 지원 확대와 같은 정책을 모든 사업대상의 주양육자들이 대체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서비스 대상 가정의 주양육자들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가정에서 두 번째로 필요한 정책으로 들고 있었다(<표 8>, [그림 1] 참조).

<표 8> 저소득 영유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분 | 기초 생활비 지원확대 |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 의료비 지원 서비스 | 자녀 교육비 지원 | 부모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지원 프로그램 | 기타 | 계(수) |
|-------------|-------------|-------------|------------|-----------|---------------|--------------------|-----|-----------|
| 위스타트 | 23.9 | 4.5 | 9.0 | 59.7 | 1.5 | 1.5 | 0.0 | 100.0(67) |
| 드림스타트 | 37.9 | 7.6 | 13.6 | 28.8 | 1.5 | 9.1 | 1.5 | 100.0(66) |
| 삼성포괄적 보육서비스 | 11.9 | 10.2 | 6.8 | 49.2 | 3.4 | 16.9 | 1.7 | 100.0(59) |
| 교복투 | 18.4 | 10.5 | 57.9 | 5.3 | 5.3 | 5.3 | 0.0 | 100.0(38) |



[그림 1] 저소득 영유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나. 저소득 영유아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아동지원사업 대상자라 응답한 주양육자들을 대상으로 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하여 중요도 순으로 질문하였을 때, 각 사업별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 정책이 다소 달랐다. 첫째,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실 학원 등 지원이 29.9%로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26.9%,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17.9%,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6.0%,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1.5% 순이었다.

둘째,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로, 위스타트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실 학원 등 지원이 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 19.7%,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15.2%,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와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가 동일 비율로 10.6%,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이 7.6%순이었다.

셋째, 삼성어린이집 포괄적보육 서비스 사업의 경우,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로,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학원 또는 학

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이 3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16.9%,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사업 확대 13.6%,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와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가 동일 비율로 11.9%,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5.1% 순이었다.

넷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경우, 다른 세 가지 아동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이 26.3%로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도 26.3%로 동일하게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18.4%,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13.2%,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10.5%,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5.3% 순이었다.

대체적으로 모든 아동지원사업 대상 영유아가정의 주양육자들은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을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으로 들었고, 다음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와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를 들었다.

다음으로 각 사업별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정책 2순위 정책이 다소 달랐다. 첫째, 위스타트 사업의 경우,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2순위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이 2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20.0%,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이 15.4%로 동일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12.3%,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가 7.7%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2순위로, 위스타트 사업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이 2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22.7%,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21.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이 동일 비율로 1.5%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사업의 경우,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2순위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가 32.8%로 가장 많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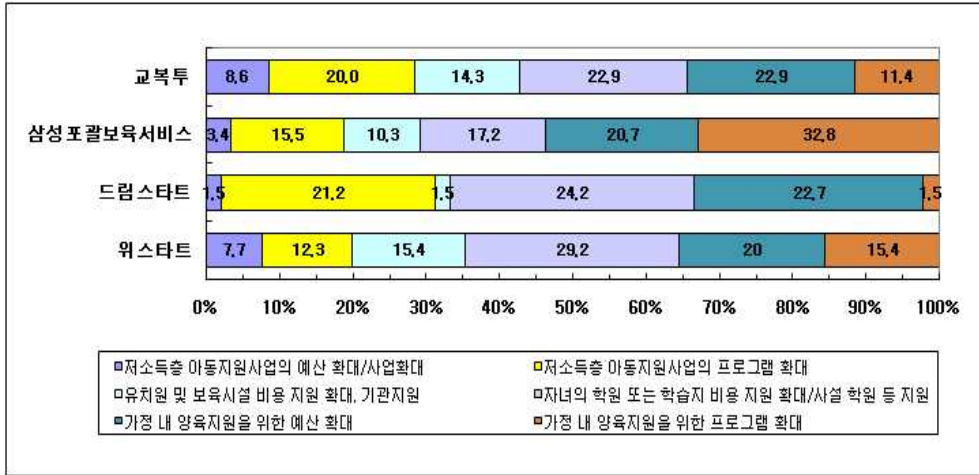
고, 다음으로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20.7%,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17.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15.5%,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10.3%,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 3.4%로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 포괄보육서비스 대상의 주양육자의 경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정책 2순위에서는 비용지원보다는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지원을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의 경우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2순위로,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과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가 2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20.0%,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 14.3%,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11.4%,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사업 확대 8.6%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그림 2],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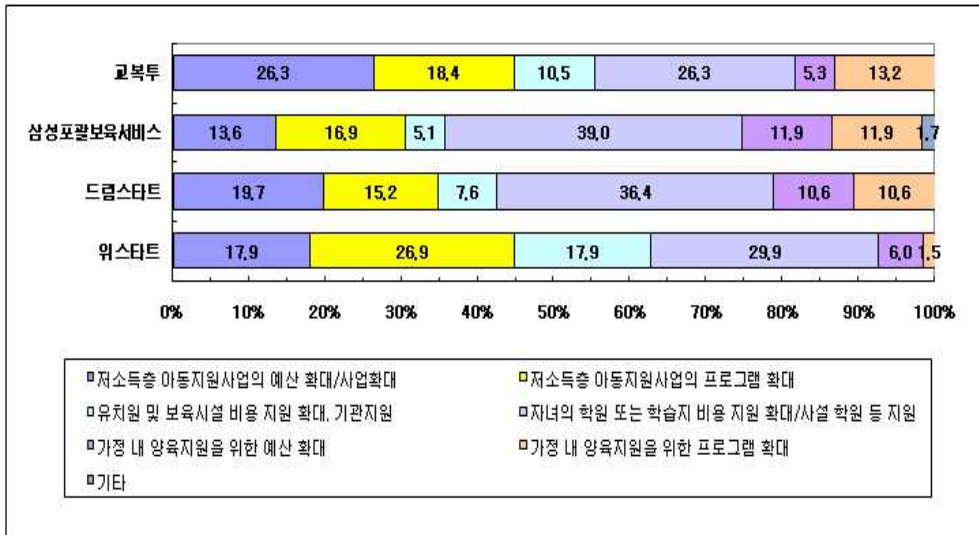
<표 9> 저소득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

단위: %(명)

| 구분 | 순위 |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의 예산확대/사업확대 |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 기관지원 | 자녀의 학원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기타 | 계(수) |
|-------------|-----|-------------------------|-----------------------|---------------------------|---------------------------------|---------------------|-----------------------|-----|-----------|
| 위스타트 | 1순위 | 17.9 | 26.9 | 17.9 | 29.9 | 6.0 | 1.5 | 0.0 | 100.0(67) |
| | 2순위 | 7.7 | 12.3 | 15.4 | 29.2 | 20.0 | 15.4 | 0.0 | 100.0(65) |
| 드림스타트 | 1순위 | 19.7 | 15.2 | 7.6 | 36.4 | 10.6 | 10.6 | 0.0 | 100.0(66) |
| | 2순위 | 1.5 | 21.2 | 1.5 | 24.2 | 22.7 | 1.5 | 0.0 | 100.0(66) |
| 삼성포괄적 보육서비스 | 1순위 | 13.6 | 16.9 | 5.1 | 39.0 | 11.9 | 11.9 | 1.7 | 100.0(59) |
| | 2순위 | 3.4 | 15.5 | 10.3 | 17.2 | 20.7 | 32.8 | 0.0 | 100.0(58) |
| 교복투 | 1순위 | 26.3 | 18.4 | 10.5 | 26.3 | 5.3 | 13.2 | 0.0 | 100.0(38) |
| | 2순위 | 8.6 | 20.0 | 14.3 | 22.9 | 22.9 | 11.4 | 0.0 | 100.0(35) |



[그림 2]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



[그림 3]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2순위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대상의 주양육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정책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

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대상의 모든 주양육자들은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였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나 프로그램 확대를 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지 삼성 포괄적보육서비스 대상의 주양육자들은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두 번째로 필요한 육아정책으로 선택하였다. 부모들의 요구는 대체로 교육비와 같은 비용지원 형태가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확대나 프로그램 확대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가중치를 부여한 가정에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순위

| 구분 | 순위 | 가정에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
|----------------|----|----------------------------------|
| 위스타트 | 1 |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
| | 2 |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
| | 3 |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
| | 4 |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사업 확대 |
| | 5 |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
| | 6 |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 드림스타트 | 1 |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
| | 2 |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사업 확대 |
| | 3 |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
| | 4 |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
| | 5 |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 | 6 |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
| 삼성포괄 보육서비스 | 1 |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
| | 2 |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 | 3 |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
| | 4 |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
| | 5 |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사업 확대 |
| | 6 |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
| | 7 | 기타 |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 1 | 자녀의 학원 또는 학습지 비용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
| | 2 |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사업 확대 |
| | 3 |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프로그램 확대 |
| | 4 |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 | 5 | 유치원 및 보육시설 비용 지원 확대/사설 학원 등 지원 |
| | 6 |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지원사업의 대상인 저소득층 가정의 주양육자들은 미래의 자녀 교육비 지원이나 기초생활비 지원확대 등과 같은 비용지원 정책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으로는 자녀의 학습지 또는 학원비 지원과 같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확대 및 프로그램 확대도 많이 요구하였다.

저소득층 가정의 주양육자들은 가정생활이나 자녀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 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점이 가정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와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육아지원정책으로 자녀의 학습지나 학원비 지원과 같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반 가정의 영유아 부모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즉 전반적인 우리나라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관련된 것으로서, 정규 교육은 물론 사교육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 현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확대와 그 사업의 프로그램들도 확대해 주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이 그러한 프로그램들에 만족하고 있고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많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저소득층 부모들은 직접적인 비용지원을 많이 원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과 그 사업내용이 확대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부모들이 다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된 일을 맡아하는 직원으로 채용 되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역할과 태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변화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지원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 확대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미래의 주역이 될 현재의 영유아 부모들에게 비용지원이 아닌 내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그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초기 환경에서부터 결핍을 경험해야 하는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지원사업은 미래 사회의 범죄 예방은 물론 미래 인적 자원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사업은 물론 지자체, 민간,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그 내용이 풍성해지고 내실을 기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의의와 추진방향. 지역협의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8). '08년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
- 군포시(2007).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군포 We Start 마을. 군포 위스타트 운영팀.
- 김명순(2001).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삼성복지재단 삼성아동교육 문화센터 제9회 학술대회 자료집.
- 김명순·황혜정·유지영·안현숙·이수현(2006). We Start 영아용 가정방문 교육중재프로그램.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김명순·정미라·배선영(2006). We Start 유아용 기관방문 교육중재프로그램.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김명순·신혜영·안효진·오유진(2007). 2007 구리시 위스타트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최종 보고서. 서울: 위스타트.
- 김명순·김길숙·이명신(2008).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 복지, 보건의 통합적 조기 개입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비교 고찰. **아동권리학회**, 12(2), 161-187.
- 김명순·이미화(2005). 포괄적 보육서비스 아동교육 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 김명순·정미라(2006). We Start 영아용 가정방문 교육중재프로그램을 위한

기관방문교사 매뉴얼.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 김미숙·조애저·배화옥·최현수·홍 미·김효진(2007).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 아동지원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선숙(2008). 빈곤아동 심리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We Start 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선자(1999). 저소득 취업모가정의 보육욕구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용미(2007). 미국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관리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아동교육(16)**, 17-30.
- 김윤경(2004). 저소득 가정의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원·최영태·박인심·김경애·김 민·양병찬·김주아·이봉주·박민정(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최영태·박인심·김경애(2007). 2006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박인심·김주아·이봉주·이원희·손은애(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만족도와 성과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최영태·김경애·김 민·양병찬·이원희(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혜영(1994). 저소득층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향숙(2001).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희진(2005). 포괄적 보육서비스 부모지원 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 나정 외(2001). 유아교육 투자 우선지역 선정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나정·김미숙(200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실태 및 요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CR 2004-1.
- 민경화(2000). 빈곤가족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선희(2006). 영국의 국가아동보육전략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

- 전 방안 모색: Sure Start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7, 79-113.
- 변화순(2001). 저소득지역 부모교육 프로그램개발. 삼성복지재단 삼성아동교육 문화센터 제9회 학술대회 자료집. 보육시설에서의 포괄적 보육서비스, 51-71.
- 보건복지부(2008). 2008년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위한 통합복지 프로젝트 2008년 “드림스타트”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008년 7월 17일.
-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편저(2006). 포괄적 보육서비스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 서문희·홍승아·박소연·권영인(2007). 취약보육 대안 마련을 위한 저소득가정 영유아보육 실태조사 보고. 한국여성노동자회·육아정책개발센터.
- 신화식·양옥승·신현옥·이상화외(2004). 영유아교육프로그램. 서울: 교문사.
- 안산시 We Start 초지마을 사업보고회(2006).
- 유희정(1997). 빈민지역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이민정·권정윤·배지희·안혜준·전홍주(2008). 생애초기 종단연구의 장단기 효과. 한국육아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77-110.
- 이봉주·이숙·황옥경·김혜란·박현선·김경륜·윤선화·이호균(2006). 한국의 주요 아동지표.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봉주·양수·김명순(2006).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길잡이 최종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이봉주·김혜란·정익중·김선중·임세희·차유림(2007). 2006 안산시 위스타트 초지마을 사업보고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안산.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이봉주·김혜란·정익중·김선중·임세희·차유림(2007).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 효과성·효율성 평가 연구 최종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이옥·유희정·이미화·장명림·김은설·김은영·이정원·이윤진·이정림·안재진 공역(2008). OECD 영유아 교육·보육정책Ⅱ.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은혜·김명순·전혜정(2006).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종단적 효과 연구 -제 1차년도 결과 보고서-. 서울: 삼성복지재단.

- 이은혜·김명순·전혜정·이정림(2007).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중단적 효과 연구-제 2차년도 결과 보고서-. 서울: 삼성복지재단.
- 이은혜·김명순·전혜정·이정림(2008).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에 대한 중단적 효과 연구-제 3차년도 결과 보고서-. 서울: 삼성복지재단.
- 이혜영·류방란·윤종혁·천세영(2002).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선정지원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임채택·김은주(2004).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의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요구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장명림·서영숙·신지현(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영·유아 교육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은경·김은영(2008).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5: 미국의 육아정책.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정원식(1991). 아동의 창의성 요인과 가정의 심리적 과정환경 변인간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경민(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 불안정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중앙일보. “조손가정 6만 가구 육박……10년 새 65% 증가”(2009년 1월 15일자)
- 허인영(1999). 빈곤결손가정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Roopnarine, J. L., & Johnson, J. E. (2005). Approache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Pearson Education.
- <http://www.chest.or.kr>
- <http://welfare.samsungfoundation.org>
- <http://www.mw.go.kr>
- <http://www.acf.hhs.gov>
- <http://www.surestart.gov.uk>
- <http://www.westart.joins.com>

- 논문접수 2009년 4월 10일 / 수정본 접수 5월 7일 / 게재 승인 5월 14일
- 교신저자: 이정림,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leettu@kicce.re.kr

ABSTRACT

Analyzing the policy needs for the parents of low-income families

Lee, Meehwa

Lee, Yunjin

Lee, Jeongrim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what policies beneficiaries of comprehensive support projects for children of low-income households wanted. The participants of the survey was 408 parents of low-income families. The parents of low-income families wanted financial support the most related to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basic living expenses. In addition, their children's education was one of their major concerns such as supporting the fee of private academies or children's workbook as child-rearing policies.

Key Word: children of low-income households, child-rearing policies.